동물과 인간은 하나의 우주 구성원
현대사회 동물 대하는 태도를 묻다

동물들의 소송

안토니 F. 괴첼 지음

비폭력주의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도덕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우리 사회에서 개와 고양이와 결부된 사건은 더이상 개인적인 에피소드에 머물지 않는다. 반려견을 입양하고, 고양이에게 밥을 먹이는 행위가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포경선의 과도한 고래 포획은 국제 사건으로까지 비화된다. 브라운관에서는 'TV동물농장', '개밥주는 남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등 예능 프로그램까지 다채로운 관련 이야기를 쏟아낸다.

동물은 이제 가족과 친구를 대신할 만큼 친근한 이웃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학대와 돈벌이로 악용되고 있다. 동물 편에서 보면 과도하거나 더러는 이율배반적인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스위스 취리히에서 동물 담당 변호사로 활동했던 안토니 F. 괴첼이 펴낸 '동물들의 소송'은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자문한다. 그러나 제목에서 느껴지는 선입관과는 달리 책의 내용은 무겁거나 딱딱하지 않다.

사실 동물보호와 관련된 책은 적지 않다. 하지만 '동물들의 소송'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물변호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활동했던 저자가 겪은 현장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동물보호운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지만 동물실험이나 축산업으로 희생되는 개체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산업화와 대량 축산업의 발달로 인류는 더 많은 양의 고기를 섭취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양상은 시스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 의식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동물과 인간 그리고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의 우주에 속한 구성원이며 긴밀히 연결된 개체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나는 개인이나 사회 전체가 동물을 온당하게 대하고 양심적으로 대하는 방식을 통해 서로 어울려 사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도적이든 무지에서든 이러한 부분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생명에 대한 도덕적 경시로 이어지고, 이는 인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알마·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한국 엔지니어의 정체성·인식 변천사

엔지니어들의 한국사

한경희 외 지음

지난 2002년 4월 21일 과학의 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기술 위기 선언'을 발표하고 100만 과학기술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당시만 해도 과학기술계에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적지 않았다.

그로부터 10여 년 만에 상황이 뒤바뀌었다. 경제 위기와 취업난 속에 이공계 학과 출신 인재들의 인기가 높다. 표면적으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감소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엔지니어의 숨은 역사 속에서 이공계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짚어본 책이 출간됐다. 연세대 공학교육혁신센터 한경희 교수와 버지니아 공과대학 게리 리 다우니 석좌교수가 펴낸 '엔지니어들의 한국사'는 한국 엔지니어의 정체성과 인식의 변천 과정 등을 살펴본다.

책은 혼란스러웠던 조선 후기부터 군사정권과 경제 개발, 민주화 운동과 재벌의 성장, IMF와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엔지니어들의 역사에 초점을 둔다. 사실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이들은 다양하다. 학사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고 기업과 연구 기관에서 지식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데 기술자, 수리공, 공학자 등을 포괄한다.

우리나라에서 엔지니어의 본격 등장은 1960~1970년대였다. 정부는 기술 인력을 분류해 경제 개발 전략을 세웠으며 기술 인력은 국가 주도 사업에 참여했다.

엔지니어들은 정부의 전략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변모해 왔다. 저자들은 '헝그리 정신'이 통했던 시대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에 변화가 필요함을 환기시키고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휴머니스트·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괴담·찌라시… 인류의 가장 오래된 미디어 재해석

소문의 시대

마츠다 미사 지음

인류의 가장 오래된 미디어인 소문은 사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예외적인 괴담을 넘어 사회를 유지시켜 온 근간이라는 긍정적인 기능도 지니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지배한 마법의 한 마디가 있다. 이것만큼 강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은 없다. "너한테만 알려주는 이야기인데 말이야."

우리는 매일 매일 '수상한' 이야기에 둘러싸여 산다. 인터넷 댓글부터 회사 '탕비실', '휴게실'에서 나누는 뒷담화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소문들이 떠돈다. 소문은 언어가 탄생한 이래 늘 인간과 함께 했다. 과장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역사는 소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알 수 있다. 백제 무왕은 선화공주를 사랑한 나머지 '서동요'을 퍼뜨려 소문을 조작했다. 비천한 신분이었던 그는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사랑을 쟁취할 수 있었다. 조선 중종 때 개혁을 주장했던 문신 조광조도 유언비어의 피해자였다. 반대파들이 '주초위왕(走肖爲王·조씨가 왕이 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결국 사약을 받게 된다.

인류의 오래된 미디어 '소문'을 다각도로 분석한 책이 출간됐다. 일본 추오대학교 문학부 교수이자 사회학자인 마츠다 미사가 펴낸 '소문의 시대'는 소문의 개념과 양상, 대처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저자는 정신분석학부터 역사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소문의 본질을 탐색한다.

저자가 바라보는 소문에 대한 관점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사회기능을 마비시키는 괴담이 아니라 역사 이래 사회를 유지시켜 온 근간이라고 인식한다. 없앨 수도 없고 없어져서도 안 되는 가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문에 대한 정의는 '공식 미디어 바깥에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입소문 형태로 전파된다'고 규정됐다. 소문이 전달하는 정보가 사실과 얼마나 다르냐에 무게를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책에서 저자가 전제하는 소문은 이렇다. '미디어를 가리지 않고 넘나들며, 정보가 아닌 '이야기'로 소비되고, 정보의 권위보다 이를 전달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핵심'인 것.

따라서 소문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진실성'이 아니다.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소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문의 핵심은 진실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지닌 그럴듯한 서사와 내적 논리를 지니고 있느냐의 여부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100% 믿지도 않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소문은 관계를 바탕으로 확산되는 정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관계'를 파악하면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소문이란 사실을 따지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관계를 살피는 정치의 영역인 것이다.

책은 또한 소문의 정체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2010년대 특징은 잠복성과 극단성을 들 수 있다. SNS 시대에는 소문이 진정됐다 하더라도 시공간 구애를 받지 않는 인터넷 속성상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사람들과 보고 싶은 정보만 공유하기 때문에 여론이 쏠림현상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만약 소문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 치중하지 말고 소문에 잠재된 막연한 선의와 교훈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또한 소문으로 결집된 '사회적 합의' 안에 숨어 있는 다수의 편견에 주의해야 한다.

또 하나, 소문을 정보 붕괴 과정이 아닌 해석을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패닉을 우려해 정보를 통제하거나 은폐할 때 권위가 부정되고 혼란이 발생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그 가운데 하나다. 인터넷에 헛소문이 떠돌 때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증거를 수집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문은 '예언의 자기성취'적인 성격이 있어 사실로 굳어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추수밭·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을까

효율적 이타주의자

피터 싱어 지음

만약 당신이 4만 달러의 돈을 기부하려고 한다. 1명을 도울 것인가? 2000명을 구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은 "당연히 2000명을 구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 기부 모금 사례를 보면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많은 이들이 불쌍한 사진이나 안타까운 사연에 끌려 기부를 한다. 사람들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에 따라 기부를 하는데, 이는 기부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린스턴대학교 생명윤리학 석좌교수 피터 싱어가 펴낸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타인을 돕는 데 있어 이성적 판단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고 이성적으로 더 많은 '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적 이타주의(effective altruism)'는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사회운동으로, 나눔 운동의 시작과 자선과 기부에 대한 명쾌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21세기북스·1만 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세계적 속담·격언·명언 집대성한 '언어의 금광'

라루스 세계 명언 대사전

모리스 말루 지음

유럽 최고의 학술기관인 아카데미 프랑세즈 상을 수여받으며 그 권위와 가치를 인정받은 '라루스 세계 명언 대사전'이 한국어판으로 번역 출간됐다.

프랑스의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에디터인 모리스 말루가 펴낸 책에는 1500개 표제어 아래 1만여 개의 명언이 실려 있다.

세계에서 통용되는 속담, 격언, 금언은 물론 고대부터 전해지는 문헌들과 대작가들의 고전에서 엄선한 명언들을 한 자리에 모은 '언어의 금광'과도 같은 책이다.

"불행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불행이다"는 말은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바이어스가 한 말이다. 책은 그 말을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그리스 철학자 열전'에서 인용했다는 사실까지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명언의 출현 지역과 시대를 밝혀놓아 각 나라별 명언은 물론 세계 여러민족 속담이 갖는 고유한 가치관과 풍속까지도 엿볼 수 있다.

〈보누스·2만8000원〉

/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